



# 기행 필승의 신심드높이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가리

## 전국당책임일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와 함께 (1)

백두산기슭에 혁명전적교양의 불바람이 휘몰아치고있다. 어제는 조선인민군 현충부대 지휘관이 붉은기를 대오앞에 펼칠 휘날리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대로의 답사길에 올랐고 또 오늘은 전국 당책임일군들이 백두의 풀물오른 군부차임으로 항일의 전구들을 용기백배하여 누르고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백두에서 개최된 주체혁명위업을 최후승리의 한길로 굳건히 이어가실 철석의 신심을 지니시고 전국의 당책임일군들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행군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물수도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의 혁명전적들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갈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행군길을 힘차게 이어가고있다.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이 행군대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북받쳐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웠는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심장의 맹세를 굳게 다진 행군대원들은 보전보로 답사길을 다그쳤다. 깃발과 억눌린 우리 인민에게 조 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맞 서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 게 어려웠는 력사의 땅 보전보, 행군대원들은 경찰관주재소와 면 사무소를 비롯한 적적지기관들이 순식 간에 승격소량되었다는 감사의 해 설을 들으며 그 이튿날 들어도 삼도 왜적이 벌벌 떨던 백두산청년전군의 천출위인상을 다시금 깊이 새겨간 이었다.

백두산기슭에 시원을 둔 맑은 물 줄기가 끝없이 솟구쳐오르는 보소리 샘물터와 우리 조국의 조국대아를 아 름다움을 뜨겁게 새겨주는 중흥동만 명제비를 돌아보며 행군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전적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시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을 심장기에 체득하였다. 원수를 무찌르며 백두전구를 중흥 무진하던 항일유격대대오마냥 붉은 기를 휘날리며 행군대는 어느덧 삼 지연군 읍에 도착하였다. 수많은 주민들이 거리에 펼쳐나와 답사행군대오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읍 36인민반에서 인포시와 덕 원들이 보전보시가지에 살포한 격문 에 대한 감사의 해설을 듣는 행군대 원들의 흥취는 유달리 컸다. 마더마 디에 애국의 피가 뛰게 하는 격문은 한자한자 명문이고 오늘날 당사 상사업에 구현해야 할 본보기라고 하면 서 순천지구청년단평원합기업소 당 책 임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거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 복되10대강령》과 《포고》를 내

번하고 당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조직할데 대해 서와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혁 명가들을 당 및 혁명조직들에 묶어두 고 통일적인 행동을 실현하며 광범 한 지역에 당조직을 내오고 급속히 확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 조 직전선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한 감사의 해설을 행군대원들은 주의깊게 들었다.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귀틀 집을 돌아보며 신용군당위원회 책임 일군은 어느덧 항일전의 나날에 마 련된 우리 당의 혁명전적들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더욱 깊이 새기었다 고 하면서 곤간의 당원들과 근로자 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전통 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갈 결의를 피 령하였다. 곁을 이락하는 내 조국의 기상 인양 백두산마루에서는 비둘기가 휘 부러지기도 하고 길은 안개로 한지 을 감추는 순간이 되었고 한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등 천변만화가 펼쳐지 었다. 백두산정에 일순간 안개가 걸릴 때면 행군대원들은 격정을 누를길 없 어 붉은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성을 올 렸다. 행군대원들은 향도봉에 새겨진 《혁명적 사상공세로 백두산 김정은 일》

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방 을 숨얼피 우리들 오매도록 눈 길을 매지 못해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나 는 선군시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 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 의 그날까지 곳곳이 이어갈 불라는 결의를 굳게 가다듬는 행군대원들은 기세충천하여 선오산밀영과 공산밀 영도봉에 묻힌 실개천을 건너 얼마 가 걸어가니 평평진한 곳에 공산밀영 사령부기둥이 자리잡고있었다. 바로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주제 26(1937)년 5월 력사적인 국내당공작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조직전결과 당생활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당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조직할데 대해 서와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혁 명가들을 당 및 혁명조직들에 묶어두 고 통일적인 행동을 실현하며 광범 한 지역에 당조직을 내오고 급속히 확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 조 직전선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한 감사의 해설을 행군대원들은 주의깊게 들었다.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귀틀 집을 돌아보며 신용군당위원회 책임 일군은 어느덧 항일전의 나날에 마 련된 우리 당의 혁명전적들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더욱 깊이 새기었다 고 하면서 곤간의 당원들과 근로자 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전통 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갈 결의를 피 령하였다. 곁을 이락하는 내 조국의 기상 인양 백두산마루에서는 비둘기가 휘 부러지기도 하고 길은 안개로 한지 을 감추는 순간이 되었고 한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등 천변만화가 펼쳐지 었다. 백두산정에 일순간 안개가 걸릴 때면 행군대원들은 격정을 누를길 없 어 붉은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성을 올 렸다. 행군대원들은 향도봉에 새겨진 《혁명적 사상공세로 백두산 김정은 일》

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방 을 숨얼피 우리들 오매도록 눈 길을 매지 못해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나 는 선군시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 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 의 그날까지 곳곳이 이어갈 불라는 결의를 굳게 가다듬는 행군대원들은 기세충천하여 선오산밀영과 공산밀 영도봉에 묻힌 실개천을 건너 얼마 가 걸어가니 평평진한 곳에 공산밀영 사령부기둥이 자리잡고있었다. 바로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주제 26(1937)년 5월 력사적인 국내당공작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조직전결과 당생활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 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답사행군대는 출발모임을 가지기 위해 해산시 패경정마루에 높이 세워진 보전보전투승리기념탑을 찾았다.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조직명도하여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자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리들며 행 군대원들은 숭엄한 격정에 휩싸여있 었다.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 려부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이 행군대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북받쳐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웠는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심장의 맹세를 굳게 다진 행군대원들은 보전보로 답사길을 다그쳤다. 깃발과 억눌린 우리 인민에게 조 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맞 서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 게 어려웠는 력사의 땅 보전보, 행군대원들은 경찰관주재소와 면 사무소를 비롯한 적적지기관들이 순식 간에 승격소량되었다는 감사의 해 설을 들으며 그 이튿날 들어도 삼도 왜적이 벌벌 떨던 백두산청년전군의 천출위인상을 다시금 깊이 새겨간 이었다. 력사의 그날의 총성이 오늘날도 들리는것만 같은 보전보혁명전적지 에서 행군대원들은 항일의 빛나는 혁 명전통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라는 삶과 투쟁의 고귀한 진 리를 더욱 뜨겁게 새기었다. 보전보혁명박물관에서 항일유격대 원들이 보전보시가지에 살포한 격문 에 대한 감사의 해설을 듣는 행군대 원들의 흥취는 유달리 컸다. 마더마 디에 애국의 피가 뛰게 하는 격문은 한자한자 명문이고 오늘날 당사 상사업에 구현해야 할 본보기라고 하면 서 순천지구청년단평원합기업소 당 책 임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거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 복되10대강령》과 《포고》를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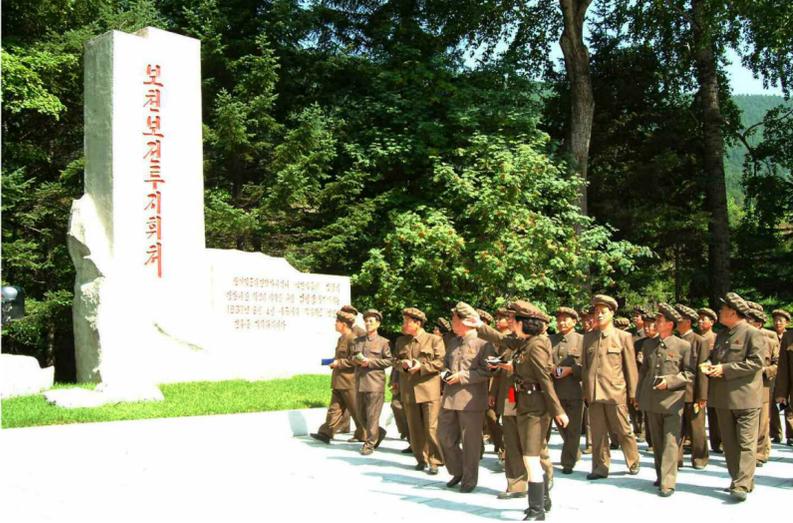
번하고 당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조직할데 대해 서와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혁 명가들을 당 및 혁명조직들에 묶어두 고 통일적인 행동을 실현하며 광범 한 지역에 당조직을 내오고 급속히 확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 조 직전선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한 감사의 해설을 행군대원들은 주의깊게 들었다.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귀틀 집을 돌아보며 신용군당위원회 책임 일군은 어느덧 항일전의 나날에 마 련된 우리 당의 혁명전적들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더욱 깊이 새기었다 고 하면서 곤간의 당원들과 근로자 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전통 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갈 결의를 피 령하였다. 곁을 이락하는 내 조국의 기상 인양 백두산마루에서는 비둘기가 휘 부러지기도 하고 길은 안개로 한지 을 감추는 순간이 되었고 한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등 천변만화가 펼쳐지 었다. 백두산정에 일순간 안개가 걸릴 때면 행군대원들은 격정을 누를길 없 어 붉은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성을 올 렸다. 행군대원들은 향도봉에 새겨진 《혁명적 사상공세로 백두산 김정은 일》

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방 을 숨얼피 우리들 오매도록 눈 길을 매지 못해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나 는 선군시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 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 의 그날까지 곳곳이 이어갈 불라는 결의를 굳게 가다듬는 행군대원들은 기세충천하여 선오산밀영과 공산밀 영도봉에 묻힌 실개천을 건너 얼마 가 걸어가니 평평진한 곳에 공산밀영 사령부기둥이 자리잡고있었다. 바로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주제 26(1937)년 5월 력사적인 국내당공작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조직전결과 당생활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당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조직할데 대해 서와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혁 명가들을 당 및 혁명조직들에 묶어두 고 통일적인 행동을 실현하며 광범 한 지역에 당조직을 내오고 급속히 확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 조 직전선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한 감사의 해설을 행군대원들은 주의깊게 들었다.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귀틀 집을 돌아보며 신용군당위원회 책임 일군은 어느덧 항일전의 나날에 마 련된 우리 당의 혁명전적들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더욱 깊이 새기었다 고 하면서 곤간의 당원들과 근로자 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전통 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갈 결의를 피 령하였다. 곁을 이락하는 내 조국의 기상 인양 백두산마루에서는 비둘기가 휘 부러지기도 하고 길은 안개로 한지 을 감추는 순간이 되었고 한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등 천변만화가 펼쳐지 었다. 백두산정에 일순간 안개가 걸릴 때면 행군대원들은 격정을 누를길 없 어 붉은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성을 올 렸다. 행군대원들은 향도봉에 새겨진 《혁명적 사상공세로 백두산 김정은 일》

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방 을 숨얼피 우리들 오매도록 눈 길을 매지 못해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나 는 선군시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 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 의 그날까지 곳곳이 이어갈 불라는 결의를 굳게 가다듬는 행군대원들은 기세충천하여 선오산밀영과 공산밀 영도봉에 묻힌 실개천을 건너 얼마 가 걸어가니 평평진한 곳에 공산밀영 사령부기둥이 자리잡고있었다. 바로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주제 26(1937)년 5월 력사적인 국내당공작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조직전결과 당생활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당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조직할데 대해 서와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혁 명가들을 당 및 혁명조직들에 묶어두 고 통일적인 행동을 실현하며 광범 한 지역에 당조직을 내오고 급속히 확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 조 직전선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한 감사의 해설을 행군대원들은 주의깊게 들었다.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귀틀 집을 돌아보며 신용군당위원회 책임 일군은 어느덧 항일전의 나날에 마 련된 우리 당의 혁명전적들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더욱 깊이 새기었다 고 하면서 곤간의 당원들과 근로자 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전통 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갈 결의를 피 령하였다. 곁을 이락하는 내 조국의 기상 인양 백두산마루에서는 비둘기가 휘 부러지기도 하고 길은 안개로 한지 을 감추는 순간이 되었고 한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등 천변만화가 펼쳐지 었다. 백두산정에 일순간 안개가 걸릴 때면 행군대원들은 격정을 누를길 없 어 붉은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성을 올 렸다. 행군대원들은 향도봉에 새겨진 《혁명적 사상공세로 백두산 김정은 일》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기네 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피나크리 기네 공화국 대통령 알파 쾀데 각하

나는 최근 귀국의 피나크리 라모에서 공연행동에 발생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포함한다.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3(2014)년 8월 3일 평양

### 참나무앞에서 찍으신 기념사진

위대한 수령님께서 왕재산의 숲을 지도하신 왕재산의 장소에는 첫눈에도 깊은 사연을 전하는 것은 한그루의 참나무가 있다. 회의장중심에서 푸르싱싱 키높이 자란 그 참나무앞에는 직사각형모양의 크지 않은 판들이 놓여있다. 왕재산기념비가 건립된 후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신허적 왕재산에 진출하시던 로정을 하나하나 되새기시고 묘상한 기억력으로 그대까지 알려지 지 않았나무에 대한 추억도 더듬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푸르러 설며 반기는 참나무를 바라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오늘 45년만에 왕재산의 장소에 찾아왔는데 참나무앞에서 기념사진을 찍 습시다. 참나무는 어디에 가나

###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에는 사상의 힘으로 개척되고 진전하는 우리 혁명위업을 사상의 위력으로 끝까지 완성시켜서 렬철의 신념이 빛날것이라고 했다. 주체의 사상론, 이 위대한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자는 것이 우리 당의 드림없는 의의이다. 지금 당사상일군들을 비롯한 우리 의 전제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서 제시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천만군민의 혁명적대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사상공세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력사적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지금 전구들 밑에서 벌어져있는 수많은 강력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적 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높은 력사적대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전진할수록,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당사상사업은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상의 위력으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가 우리 당사상사업의 주적 임무로 나서고있는 현실적요구로부터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 하였다. 모든 사회현상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로 통일하는 것은 모든 사회현상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로 개조하는 투쟁도 사상사업의 성과에 달려있다. 우리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사상의 힘,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백배배로 분출시켜 혁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당사상사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적 령도에 힘입어 충실한 불라는 결 의를 다지었다. 로동동원 김철일

### 혁명투사들의 소중한 정신세계를 본받아

2.8직동정전관공급당 있다. 얼마전 초급당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5명 체단 5중대 막장으로 향일백제산참가자들의 회상기 《길은 한나이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이 있었다.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된 토론 들에서 당원들과 단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 로 높이 모시고 한복속에서 결사 용위한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적 령도에 힘입어 충실한 불라는 결 의를 다지었다. 로동동원 김철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30돐 중앙보고회가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태상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상상이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또한 《당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향을 일으키자!》,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자!》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김기남동지, 로두철동지와 안정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정권기판, 근로단체, 상,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서 모범적인 일꾼들과 로력혁신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국,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하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는 격조 높은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벌어진 3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갈피마다에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 이 운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30돐 중앙보고회 진행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제지도일꾼들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며 당의 의도에 맞게 경영발전의 중요한 과업을 하나하나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수 있도록 정당한 지도체계를 세워주시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서 기록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며 이 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정권기판, 보문강구역, 선교구역, 사동구역, 대동강구역, 원산시 등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생산자들에게 은정 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었다.

주제 79(1990)년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국공정경제개발사업에 참가하여 력사적인 시한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어려운 시기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계속 활성화해나가기 위하여 혁명적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원바람을 일으키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합격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찾으시고 전시관 제물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이 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제 102(2013)년 3월 18일 전국공정경제개발사업에서 갖가지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보고자는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지난 30년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독창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자기 발전의 자랑찬 로정을 걸어온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운동을 통하여 일꾼들과 생산자들의 적극성과 창의성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상품확보와 교류사업, 주민봉사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자재의 원료기지에 의하여 상품생산을 높여 인민생활에 적극 기여하였다고 말씀하였다.

이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 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도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셨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 새로운 건설속도를 과학자 창조하며 질풍같이 내달린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었던 영광의 그날로부터 한달 남짓한 기간 공사장은 또다시 눈부시게 변모되었다.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가기 위한 장엄한 대고조전군의 앞장에서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는 건설전선속에는 조선인민내무군 진광철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군장병들은 마식령스키장건설뿐 아니라 당이 맡겨준 모든 중요대상건설과도, 사, 군들을 꾸려주기 위한 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 승리만을 아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 떨치며

조선인민내무군 진광철소속부대

올망조, 리인철동무를 비롯한 한 정지일꾼들이 전투장마차에서 사상전, 선전선동의 번바람을 일으켰다. 공사장의 분위기는 사슴이 고조되고 군인대중의 정진력이 폭발되었다.

부대가 맡은 살림집호동들에 대한 외벽타일붙이기 본격적으로 벌여지던 지난 6월말이 아닐었다.

오후시간에 들어서면서부대공사장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세차게 퍼붓는 비로 하여 작업이 중단되었다. 지휘관도 병사도 초조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있던 때 비속을 뚫고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 군인들이 있었다.

리만복소속부대 군인들이 립국별, 김보성동무들이었다.

얼마후 그들이 날라온것은 내수합판들이었다. 그것으로 제양을 만들어 설치하여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자는것이였다. 이 방법은 즉시 모든 작업조들에 도입되었다. 살림집호동들에서 빙 돌아가며 비막이 채양이 설치되었고 부대에서는 외벽타일붙이기가 계속되었다.

불가능을 모르는 군인기질, 군인본능은 부업발전과 원림조성사업에서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다른 시공단위들에 비해 부대가 지닌 건설자의 부지런성이 넓은 것으로 하여 그에 따르는 공사량도 결코 간단치 않았다. 종합공인과 소학교구획원림조성, 부업발전설에 필요한 부식토와 메휴만도 수천㎡, 전용방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이 평성시의 여러 지구에 대한 답사길에

## 현지도 완공의 그날이 앞당겨진다

조선인민군 김용철소속부대 7호동살림집건설장에서

여기는 조선인민군 김용철소속부대가 맡은 살림집건설현장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명령이 시라면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르며 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이며 투쟁기풍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휴식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깊은 밤에도 전투장을 뜨지 않은 엄밀구조속부대의 류일영, 김정성동무들, 두류, 세류의 일감을 자진하여 맡아내고 날에남다 놀라운 공사속도를 창조하고있는 김금주, 리호남, 전철명, 김주혁동무들 비롯한 리영일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

당의 명령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체현한 이런 군인건설자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최형, 장정철, 기기남, 공훈동무들 비롯한 지휘관들이 서있었다.

1950년대 영웅선사들의 투쟁기풍으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하자!

오늘도 이곳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이런 불같은 열매를 짓고있었다. 인민군기질, 군인본능을 남김없이 파시하며 완공의 날을 향하여 구름도 내달리고있다.

이른 남새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나고있다.

현장지휘부와 각 시공단위 건설자들은 사계절 과학자정세대에 부루, 축삭 등 갖가지 남새를 생산공급할수 있는 4개 호동의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이곳 과학자거리에 새집들이 하는 경사로운 날 가을배추와 무가 실하게 자란 부업발전이 매 가정세대에 골고루 차례지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 백점, 만점 짜리로!

5호동 1현관살림집건설장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조선인민군 김용철소속부대에 유충렬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맡은 5호동 1현관살림집건설장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박원을 일떠세우는 만민대개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위력확충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 6월 19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돌아보신 1호 살림집을 찾았다.

밝고 아담하게 꾸러진 여러 살림방들과 전실, 부엌... 돌아볼수록 과학자들에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살림집을 얻어주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음성이나 귀전에 정경하게 들려오는듯싶었다.

베란다에 나가서 한쪽구석에 놓여있는 불쏘시개를 보시고 우리 군인들이 참으로 기록하다고 높은 평가의 말씀도 주시었다는 부대지휘관인 김영남동무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관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으며 다음살림집으로 향하였다.

출입문을 지나려는 순간 그 우에 《행진 6층 1호 책임자 박철규》이라고 정성들여 써진 글씨가 류달려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머지않아 평범한 군인건설자의 저 이름이 이

## 건설장의 새 풍경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곳 곳마다에 이채로운 모습이 펼쳐져있고있다. 튼튼한 남새농사 풍경이다.

지난 6월 19일 이곳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들사이에서 과학자들을 위한 부업발전과 온실도 잘 꾸려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현장지휘부와 각 시공단위 일꾼들은 주먹지구의 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밭구획들을 새로 정한데 이어 부업발전설을 빠른 기간에 구축하기 위

한 총돌격전으로 건설자들을 힘있게 불려일었다.

불과 며칠동안에 부업발전설을 위한 방대한 량의 절토공사가 성과적으로 계속되고

남새를 생산공급할수 있는 4개 호동의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이곳 과학자거리에 새집들이 하는 경사로운 날 가을배추와 무가 실하게 자란 부업발전이 매 가정세대에 골고루 차례지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이른 남새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나고있다.

현장지휘부와 각 시공단위 건설자들은 사계절 과학자정세대에 부루, 축삭 등 갖가지 남새를 생산공급할수 있는 4개 호동의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이곳 과학자거리에 새집들이 하는 경사로운 날 가을배추와 무가 실하게 자란 부업발전이 매 가정세대에 골고루 차례지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 누구나 화선지휘관이 되어

수도건설위원회 일꾼들

《죽으나사나 5월말까지 건설에 참가한 각 단위의 모든 당세포들에서 당앞에 결의다짐을 표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당앞에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고 당앞에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고 당앞에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고...》

《죽으나사나 5월말까지 건설에 참가한 각 단위의 모든 당세포들에서 당앞에 결의다짐을 표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당앞에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고 당앞에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고...》

《죽으나사나 5월말까지 건설에 참가한 각 단위의 모든 당세포들에서 당앞에 결의다짐을 표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당앞에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고 당앞에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고...》

《죽으나사나 5월말까지 건설에 참가한 각 단위의 모든 당세포들에서 당앞에 결의다짐을 표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당앞에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고 당앞에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고...》

봉사망건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봉화건설사에서-

# 행복의 웃음소리 싣고 동해의 푸른 물 출렁인다

##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 펼쳐지는 야영기아래 드높은 사회주의만세소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조선로동당의 송고한 후대사랑이 눈물겹게 어려오는 이 부문이 더욱더 우리의 심장을 틀어잡고 격정의 파도를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우리 나라와 로씨야, 아일랜드, 벨라, 탄자니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생들의 밝고 즐거운 모습이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으로 가슴뜨겁게 해주었다.

나라와 지역, 언어와 피부색은 서로 달라도 야영생들은 저저마다 감격하여 말한다.

새로 개건된 야영소가 정말 황

홀하기 그지없다고, 이런 훌륭한 야영소는 처음 본다고, 조선의 학생소년들이 정말 부럽다고...

해당화 곱게 핀 바다가의 공원의자에 앉아서서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학생소년들에게 친아버지의 정을 부여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어머니 수령님과 어린이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르느라만 가슴지는 격사의 나날들이 숨쉬기 어려웠고 웅장화려한 멋쟁이 건물들과 곳곳의 최상급 시설들을 바라보노라면 오늘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자욱이 되새겨져 심장의 박동이 새차게 놀랐다.

과연 이 세상에 나라의 보배이며 인류의 미래인 학생소년들을 이처럼 따뜻이 품어 안고 온갖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동해명승 송도원에 울려 퍼지는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즐겁게 들으며 백사장가를 거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의 사회주의

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크나큰 희열과 긍지가 가득차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받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에로부터 《백사청송》으로 불려 온 송도원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승지였다.

마치명산출구의 높고낮은 봉우리들과 여기에서 뿜어내린 산발들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진

조선통해의 맑고 푸른 물결과 바다기슭을 따라 펼쳐진 흰모래밭, 푸른 소나무숲과 붉게 핀 해당화 등이 잘 조화되어 한쪽의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바다가 풍치를 이룬 송도원은 그야말로 세상에 자랑할만 한 명승지였지만 오랜 세월 일제와 착취계급의 유흥장으로, 돈벌이장소로 리용되어왔다.

그러던 송도원은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진정한 인민의 문화휴식터, 휴양지로 전면변경 되었다. 태양과 같이 따사로울 위대한 어머니사랑속에 동해명승 송도원에 후대들을 위한 야영소도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언제나 우리 학생소년들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8(1959)년 6월 송도원을 돌아보시면서 풍치아름다운 이곳에 소년단야영소를 새로 짓도록 몸소 타지를 잡아주시였으며 건설방향과 방도를 한층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여러차례나 야영소를 찾아서 송도원의 제일 좋은 자리에 야영소를 지어준것은 잘한것이라고,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야영생활조직과 지도를 잘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후방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친아버지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어머니수령님의 송고한 후대사랑을 정히 받들어 이곳 야영소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야영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 인제인가 소년단야영소는 아이들의 집인것만큼 굳건처럼 꾸려주시고 하시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본보기야영소로 꾸밀데 대한 위대한 구상을 펼치신데 이어 유용한 설계일군들과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야영소개건공사가 훌륭히 완공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적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때인 주체82(1993)년 3월 이곳을 찾으시어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을 로해하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신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열화같은 장군님의 후대사랑에 목매어 눈곱잡지는 우리 인민이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물장구치며 좋아하는 저 아이들이, 새로 건설한 야외물놀이장, 야외활동장 그리고 황홀함의 절정을 이루는 수족관, 조류사, 펠레를 동원화관, 거울집 등에서 배를 그려내고 웃고있는 야영생들이 어찌 다 알수 있을것인가.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밤잠도 잊고서도 불철주야의 로고를 버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이하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친치개벽시켜주시고 야영생들이 사회주의 문명, 천만가지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시였는지.

지난 4월 준공을 앞둔 이곳 야영소를 찾으시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뜻같은 말씀에 더 어려웠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

진정 우리가 혁명하는 보람, 혁명하는 멋도 다름아닌 후대들을 위해서임을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후대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아이들의 웃음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꾸꾸는 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거울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아이들의 마음속엔 오직 진실만이 통한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런 훌륭한 야영소를 많이 사진찍어 자기 나라에 가지고가서 자랑하겠다고 진정을 고백하며, 우리 학생소년들과 똑같이 생일이면 저국만 정성이 갖는 생일상을 마주하며 세계 여러 나라 야영생들은 조선의 학생들이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노래의 깊은 뜻을 절감하고있다.

그렇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수 없는 꿈만 같은 행복찬 야영생활을 통하여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생들은 심장으로 깨달았다. 위대한 대원수님처럼 후대들을 끌어들여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 모시어 조선의 학생소년들의 앞날에는 더 밝고 창창한 미래날이 있을것이라는것을.

하기에 우리에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창공에 펼쳐질 휘날리는 야영기의 세찬 펼쳐짐소리가 무심히 들려오지 않는다.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혁명의 역군으로 육성케 키워가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심깊은 사랑이 옹성담담 송도원의 야영생들을 이렇듯 빨리 철거하게 하였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게 안겨드는데 동해의 명승 송도원이었다.

또 하루 즐거운 야영의 기쁨을 풀없이 누리시는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정경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쾌감이 울려나오고있다.

지세지 말아다오, 송도원의 밤!

꿈과 현실이 펼쳐진 동해의 푸른 물결처럼 강성조선의 팽창한 미래로 달려가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아름다운 총정파 희망의 노래가 더 활짝 펼쳐지게.

본사기자 김명훈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야영소의 일꾼인 리명옥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어머니사랑속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더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날마다 야영소에 끌어들여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대할 때마다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송고한 후대사랑그대로 동해명승에 세상에 들도 없는 아이들의 호명, 아이들의 공전을 일떠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신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뜨겁게 되새기곤 하는 야영소일꾼들과 종업원들이다.

그렇 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가는 야영소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의 정성은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교양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미래와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영이 시작된 날 저녁이

들의 정성은 천부모의 심정 그대로이다.

이들이 바쳐온 헌신의 낮과 밤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랴.

다음날 야영생들을 위한 풍성한 식사준비를 위해 급양과의 종업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바쳐가는 불같은 열정도 밤하늘의 못빛들만이 알고있다. 야영생들의 구미에 맞게 더 맛있는 요리가 식탁에는 늘 푸짐한 음식들이 올라 야영생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야영소관리운영에 지장이 있을세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설비들을 정성껏 애호관리하며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가는 설비담당자들의 가슴에도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지겨간다는 영애와 긍지가 그대로 차넘치고있다.

당에서 품을 넣어 꾸려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판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에서 내서는 파업들을 밝혀주시고 야영소의 일꾼들, 교직원들과 함께 기쁜사건도 찍어주시신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은 이들의 가슴속에 애국충정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 그 송고한 뜻을 활짝 꽃피워가는 이곳 일꾼들과 교직원들의 뜨거운 지성에 발들려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드높이 한성 잊지 못할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우리 세대들이다.

본사기자 공로혁

황홀하게 꾸려진 야영1각에 보금자리를 편 학생소년들은 만나보고싶어 우리는 4층의 어느 한 호실에 들렀다. 그들은 재가공의 의자와 침대가 걸터앉아 즐겁게 흘러간 하루를 그러모며 일기를 쓰고있었다.

우리를 반겨맞아준 중앙학생소년단지도교원 김숙녀동무는 격정에 넘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학생들이 야영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4층의 어느 한 호실에 들렀다. 그들은 재가공의 의자와 침대가 걸터앉아 즐겁게 흘러간 하루를 그러모며 일기를 쓰고있었다.》

우리를 반겨맞아준 중앙학생소년단지도교원 김숙녀동무는 격정에 넘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학생들이 야영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4층의 어느 한 호실에 들렀다. 그들은 재가공의 의자와 침대가 걸터앉아 즐겁게 흘러간 하루를 그러모며 일기를 쓰고있었다.》

《우리 학생들이 야영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4층의 어느 한 호실에 들렀다. 그들은 재가공의 의자와 침대가 걸터앉아 즐겁게 흘러간 하루를 그러모며 일기를 쓰고있었다.》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세상에 부럽없어라!》  
야영소구내에 세워진 구호를 보시며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이 노래와 함께 나ieren 가슴들에 소중히 되새긴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그 절절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와 더불어 여러 나라의 야영생들도 잘 알게 되었으리라.

### 한생 잊지 못할 즐거운 야영의 날과 날이 흐른다



A collage of photos showing children at a water park, in a classroom setting, and performing on a stage.

#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

##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보낸 보양생활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정해놓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 과외교양기지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

평안북도에서 학생소년들을 위한 과외교양기지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세대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하겠다.》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신의주학소년공전과 림체를동명화관, 피천소년단아영소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도에서는 과외교양기지건설을 위한 건설장기취부를 조직하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동원시키며 이 건설에 필요한 재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지난해 경제조직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신의주학소년공전건설을 맡은 평안북도청년동맹대의 일꾼들과 청년동맹대원들은 치열한 돌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기초공사와 기초콘크리트기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꾼들과 동맹대원들은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보다 훌륭한 과외교양기지를 마련해줄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학생소년공전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해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다.

림체를동명화관건설을 맡은 평안북도 신의주청년동맹대의 일꾼들과 청년동맹대원들은 청춘의 슬기와 용기를 떨치며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지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1 500여㎡의 기초공사를 700여㎡의 기초콘크리트기를 끝낸 기세를 보존공사와 벽체추공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기둥과 보, 총괄철근조립을 맡은 중대장 주성현동무와 조대원들은 20일동안에 10여일에 달하는 철근가공조립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대대장인 정성철, 오광철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과 청년동맹대원들은 청년적응, 단년보충의 주요를 높이 들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피천소년단아영소건설을 맡은 일꾼들과 동맹대원들도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실천적사업성과로 만들어갈 열의에 넘쳐 건설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일꾼들과 청년동맹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신의주학소년공전과 림체를동명화관, 피천소년단아영소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은



애국의 마을안고 자기 일터를 공원과 같이 꾸려가고 있다. -평양고무공장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진행된다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라선시에서 진행된다.

전시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

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회사들이 출품하는 전자제품, 문건기재, 경공업제품, 의약품, 공예품 등이 전시되게 된다. 전시회는 무역,

경제, 과학기술분야에서 나라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한 식 슬

대동강구역 육류1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김광수동무의 집에 기쁨이 넘쳐난다.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친혈육처럼 정이 두터워진 묘향지도국 아예단위의 종업원들이 또다시 찾아온것이다.

영예군인의 생일은 물론 국가적기념일과 명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단위의 일꾼들과 종업원들, 이 나날에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바뀌어도 영예군인을 위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추우면 추울새라 늘 영예군인을 마음에 두고 자주 찾아와 생활다뜻이 보살펴주고 노릇을 하며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최금옥, 리순임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정에 영예군인과 그의 가족이 뜨거울 뿐 아니라 한두번이 아니다.

하기에 김광수동무는 인간사랑의 대가인을 마련해준 고마운 우리 당에 뜨거운 인사를 드리며 혁명의 꽃을 번화없이 피워갈 정의를 가다듬고 있다.

끝 및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대동강구역 육류1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김광수동무의 집에 기쁨이 넘쳐난다.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는 철도지원열의

위원회는 지도밑에 철도지원과 철길관리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해설해주면서 시, 군들과 기관, 기업소들에서 철도를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철저히 지원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의 책임일꾼들부터가 이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고있다.

《도, 시, 군들에서 철길장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근거있게 밀고나가면서 철도역과 철길정비정리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안북도에서 철도지원열의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나라의 철길을 개명해 대한 경제를 위한 선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철도건설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년초부터 본격적으로 힘있게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 일꾼들과 당원들을 직접 뽑아

위원회는 지도밑에 철도지원과 철길관리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해설해주면서 시, 군들과 기관, 기업소들에서 철도를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철저히 지원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의 책임일꾼들부터가 이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고있다.

《도, 시, 군들에서 철길장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근거있게 밀고나가면서 철도역과 철길정비정리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안북도에서 철도지원열의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나라의 철길을 개명해 대한 경제를 위한 선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철도건설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년초부터 본격적으로 힘있게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 일꾼들과 당원들을 직접 뽑아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나라에서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이 이루어진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매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대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 따뜻한 동지적사랑속에서

### 연산군 홀로로동자구 김준혁동무의 생활에서

가정형편을 일일이 료해하고 정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담겨 행을 빛나게 살자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그 이름만 광산초급당위원회 책임일꾼의 방에서는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더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가 도의되었다.

일꾼들은 평안마을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줄것을 토의한 다음 영예군인들의 가정을 담당하고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기로 하였다.

각 재단원 김준혁동무의 가정을 맡은 서경성동무는 영예군인 이 군사부부의 나날처럼 공손신념을 간직하고 생활하도록 도배주면서 그의 건강회복을 위해 뜨거운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의 안해인 남수진동무에게 맞춤형 직업도 해결해주고 아이들의 학습과 조직생활에도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나라에서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이 이루어진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매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대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 따뜻한 동지적사랑속에서

### 연산군 홀로로동자구 김준혁동무의 생활에서

가정형편을 일일이 료해하고 정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담겨 행을 빛나게 살자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그 이름만 광산초급당위원회 책임일꾼의 방에서는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더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가 도의되었다.

일꾼들은 평안마을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줄것을 토의한 다음 영예군인들의 가정을 담당하고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기로 하였다.

각 재단원 김준혁동무의 가정을 맡은 서경성동무는 영예군인 이 군사부부의 나날처럼 공손신념을 간직하고 생활하도록 도배주면서 그의 건강회복을 위해 뜨거운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의 안해인 남수진동무에게 맞춤형 직업도 해결해주고 아이들의 학습과 조직생활에도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나라에서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이 이루어진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매 일심단결되어있으며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대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 따뜻한 동지적사랑속에서

### 연산군 홀로로동자구 김준혁동무의 생활에서

가정형편을 일일이 료해하고 정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담겨 행을 빛나게 살자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그 이름만 광산초급당위원회 책임일꾼의 방에서는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더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가 도의되었다.

일꾼들은 평안마을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줄것을 토의한 다음 영예군인들의 가정을 담당하고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기로 하였다.

각 재단원 김준혁동무의 가정을 맡은 서경성동무는 영예군인 이 군사부부의 나날처럼 공손신념을 간직하고 생활하도록 도배주면서 그의 건강회복을 위해 뜨거운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의 안해인 남수진동무에게 맞춤형 직업도 해결해주고 아이들의 학습과 조직생활에도

## 고 마을 제도의 혜택 속에

### 상원군 읍 26인민반 조명옥동무의 생활에서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 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상원군 읍 2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조명옥동무가 김만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의식을 차린것은 3일만이었다.

얼굴에 비쳐드는 햇빛을 감촉하며 숨쉬는 눈을 뜨고 김만우동무는 침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여러쌍의 눈길과 마주쳤다.

《꿈은 아니고... 그러면 누구 들입니까?》

흰 위생복을 입고 정교한 눈길로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음을 짓는 사람들속에서 그는 당당의 사 리혁동무를 알아보았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요. 고맙습니다.》

조명옥동무가 정신을 차리자 리혁, 강봉호동무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환자의 손을 꼭 잡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 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상원군 읍 2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조명옥동무가 김만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의식을 차린것은 3일만이었다.

얼굴에 비쳐드는 햇빛을 감촉하며 숨쉬는 눈을 뜨고 김만우동무는 침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여러쌍의 눈길과 마주쳤다.

《꿈은 아니고... 그러면 누구 들입니까?》

흰 위생복을 입고 정교한 눈길로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음을 짓는 사람들속에서 그는 당당의 사 리혁동무를 알아보았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요. 고맙습니다.》

조명옥동무가 정신을 차리자 리혁, 강봉호동무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환자의 손을 꼭 잡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 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상원군 읍 2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조명옥동무가 김만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의식을 차린것은 3일만이었다.

얼굴에 비쳐드는 햇빛을 감촉하며 숨쉬는 눈을 뜨고 김만우동무는 침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여러쌍의 눈길과 마주쳤다.

《꿈은 아니고... 그러면 누구 들입니까?》

흰 위생복을 입고 정교한 눈길로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음을 짓는 사람들속에서 그는 당당의 사 리혁동무를 알아보았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요. 고맙습니다.》

조명옥동무가 정신을 차리자 리혁, 강봉호동무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환자의 손을 꼭 잡

## 시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적극 보장

### 청진려객차사업소에서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령객들을 수용하여 인민들에게 교통상편의를 잘 보장해주기 위한 투쟁으로 종업원들을 불러 일시키는 조직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청진시민들에게 돌려주실 위대한대헌신자들의 사랑과 은정을 종업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대, 중, 소수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령객운수수단에 대한 수리정비를 앞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일꾼들은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에 깃들여있는 케도전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 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상원군 읍 2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조명옥동무가 김만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의식을 차린것은 3일만이었다.

얼굴에 비쳐드는 햇빛을 감촉하며 숨쉬는 눈을 뜨고 김만우동무는 침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여러쌍의 눈길과 마주쳤다.

《꿈은 아니고... 그러면 누구 들입니까?》

흰 위생복을 입고 정교한 눈길로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음을 짓는 사람들속에서 그는 당당의 사 리혁동무를 알아보았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요. 고맙습니다.》

조명옥동무가 정신을 차리자 리혁, 강봉호동무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환자의 손을 꼭 잡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 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상원군 읍 2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조명옥동무가 김만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의식을 차린것은 3일만이었다.

얼굴에 비쳐드는 햇빛을 감촉하며 숨쉬는 눈을 뜨고 김만우동무는 침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여러쌍의 눈길과 마주쳤다.

《꿈은 아니고... 그러면 누구 들입니까?》

흰 위생복을 입고 정교한 눈길로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음을 짓는 사람들속에서 그는 당당의 사 리혁동무를 알아보았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요. 고맙습니다.》

조명옥동무가 정신을 차리자 리혁, 강봉호동무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환자의 손을 꼭 잡

## 비수용품과 공구들을 자체로 확실히 갖추어 놓고 실행력을 높여가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변전소들의 전력공급체계를 컴퓨터로 장악시켜주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무게도전차운전자들이 령객수송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가고있다.

해안, 서양, 청양, 라남중대의 무게도전차운전자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신념으로 삼고 령객수송을 책임적으로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적극 보장해가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일별, 주별, 월별로 령객수송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수송수량을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 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상원군 읍 2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조명옥동무가 김만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의식을 차린것은 3일만이었다.

얼굴에 비쳐드는 햇빛을 감촉하며 숨쉬는 눈을 뜨고 김만우동무는 침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여러쌍의 눈길과 마주쳤다.

《꿈은 아니고... 그러면 누구 들입니까?》

흰 위생복을 입고 정교한 눈길로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음을 짓는 사람들속에서 그는 당당의 사 리혁동무를 알아보았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요. 고맙습니다.》

조명옥동무가 정신을 차리자 리혁, 강봉호동무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환자의 손을 꼭 잡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 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상원군 읍 2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조명옥동무가 김만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의식을 차린것은 3일만이었다.

얼굴에 비쳐드는 햇빛을 감촉하며 숨쉬는 눈을 뜨고 김만우동무는 침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여러쌍의 눈길과 마주쳤다.

《꿈은 아니고... 그러면 누구 들입니까?》

흰 위생복을 입고 정교한 눈길로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음을 짓는 사람들속에서 그는 당당의 사 리혁동무를 알아보았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요. 고맙습니다.》

조명옥동무가 정신을 차리자 리혁, 강봉호동무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환자의 손을 꼭 잡

